

전원주·김민중 '인기 절정'

불자 탤런트 안방포교사 역 '특목'



전원주씨

그러나 요즘은 방송국PD들이 가장 싫어하기 힘든 사람으로 전원주를 꼽는다. 그만큼 인기 상승이다. 전씨는 KBS-TV '코미디 세상만사'를 비롯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등 총 7개의 TV 프로그램에 캐스팅되어 있다. 또 '국제전화 002' '싱싱 병장고' '모기 살충제 홈메이드' 등 CF와 인터뷰, 강의 요청에 잠잘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올해로 연기생활이 35년째. 방송 녹화에 들

전 손목엔 항상 단주 김 언제나 근자 목걸이

어가기전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수경>을 늘 암송한다는 전씨의 오른쪽 손목에는 항상 단주가 채워져 있다. 법명은 대원행(大願行). 전씨는 "무명시절 대사로 거의 없는 단어가 주어지 연기를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일 때마다 손에 긴 단주를 굴리며 기도했다"며 기회가 되면 불교방송에서 포교 프로그램을 진행 해보고 싶다고 한다.

SBS-TV 드라마시리즈 '미스터 Q'에서 주인공 이강보 역을 맡아 이 드라마의 시청률을 높였는데 일



김민중씨

조하고 있는 김민중씨는 '착한사람' '기다릴수 있는 사랑' 등 다양한 특 변주곡들이 실린 제4집 앨범 '애(愛)'를 발표하는 등 가수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늘 근자 목걸이를 걸고 있고 시간만 내면 절(농인선원)에 나가 기도한다는 김씨는 지난 4월 조계종 포교원이 제작한 신도등록 캠페인 CF에 참여하기도 했다. 법명이 '법진(法眞)'인 김씨는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선물해주시는 근자 목걸이를 보며 용기를 얻는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m@budhopia.com)

방송 소식

불교TV 이사 30명 총원

불교TV(사장 정우섭)는 22일 포이동 구룡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불교총지중, 일불선교중, 보문중 등 30여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불교TV는 또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전개하고 있는 삼배수의 및 남골담 분양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안도 통과 시켰다.

한편 불교TV 문화사업단은 24일부터 뉴코아백화점 7개 분점에서 '효도상품 기획전'을 실시하고 있다.

CTN 茶 우수프로 뽑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19일 케이블 TV CTN의 특집 다큐멘터리 '차(茶)' 등 3편을 2분기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뽑힌 다큐멘터리 '차'는 차의 정의, 기원, 종류 효능 등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한 '인간의 위대한 발견, 차'와 차의 한국전래 과정 및 한국의 삼속에 뿌리 내린 차문화를 조명한 '차향을 따라서' 등 총 2부작으로 구성됐다.

신행수기 당선작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참회의 눈물 ② · 글

마 음공부는 수행하는 스님들만이 하는 공부인줄 알았다. 책 속에 있는 조사님들의 말에만 있는줄 알았지. 내 마음 속에도 부처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저 밖에서 부처를 찾겠다고 방황하던 날들이 우스워졌다. 한순간 알고 보니 이제까지의 모든 고통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이렇게 신령스러운 수가.

그저 믿기만 했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내 가슴은 사람으로 출렁거렸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모진 고통을 주었나 하는 참회의 눈물이 주무룩 흘렀다. 내가 우는 것도 아닌데 그저 눈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느낌이다. 업이 녹는 줄 같았다. 모두가 내 탓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도 아니고 그냥 깨달음이었다. 그 날 남편이 고마워서 삼배를 올렸다. 스님에게 공부를 절점받던 날. "스님! 제 남편에게 삼배를 하고 싶은데요" 했더니 "그럼 하십시오" 굳어터지지는 않았지만 말이 담긴 내 머리 속과 같았다.

눈만 뜨면 한숨과 절망으로 하루를 보냈고 몸은 천근만근이나 무거움을 느꼈고 미칠 정도였던 머리 속도 어느 한 순간에 치료되어 버렸으니 어느 약이, 어느 의사가 이렇게 상쾌하게 치료를 해줄 수 있겠나.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남편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었다. 앉지는 말라 하던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하고, 회도 잘 내더니 이전 순한 양이 되었다. "내게 업이 많아서 하는 일이 안되나"라는 말도 하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성철스님의 법문테이프도 꺼내 들어보곤 한다. 이렇게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되게 하는 일이 안되겠는가. 앞으로 하나하나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오로지 내 걱정만 하고 살던 나는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덕분에 이례는 주위를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다. 이 부처님 도리

를 내 식구들, 내 부모님들, 형제들, 세상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불법공부를 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불국경토가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렇게 좋은 불법을 스님들은 왜 율바르게 가르쳐주시지 않는지, 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지 않는지 의문이다. 기복에 끌리는 것도 잠시 일뿐 모두가 실망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무조건 집착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마음을 갖

되게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 하지만 애쓰며 산다고 그리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만이 아닌 진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한다. 이 마음 한번 보고 나면 모두가 그대로인 것을 애크 필요도 없이, 잘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저절로 그리 되니까 얼마나 편한가. 화를 낼래야 낼 수도 없다. 이 마음이 화를 안내니까 장사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장사가 잘 안되면 오늘은 이 마음이 이 몸을 편히 쉬게 하는구나 하고 시간이나 재우다가 문닫고 들어간다.

전 같으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폭발하기 일보직전일텐데 이런 다르다. 잘되는 날 있었지 하고 그냥 그대로 마음이 편하다.

어떻게 보면 불교 사람을 게을러지게 만들고 아둔한 사람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 편안한 마음 속에서 뭐가 되든 되지. 인상 써가며 어귀다툼 속에 싸워봐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바쁘게 살다보니 선원에는 날마다 못가고 있다. "종아라, 땅이 놓으면 많이 얻고, 적게 놓으면 적게 얻는다" 하겠지만 일만만큼은 못놓고 있다. 이제 내 소원은 남편이 하는 일이 잘돼서 내가 일을 놓아도 되는 것이다. 여러 도반들과 같이 정진하면서 부처님 말씀 속에서만 살고 싶다.

인금숙 (안양시 민인구 안양9동)



그림 · 이준석

번민·갈등 단절하는 의미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석발



송림사 후불탱화(부분), 1740년경.



지오토작 '프란체스코의 죽음' (부분), 1220년경. 아씨시 성프란체스코성당 소장.

불가에서는 머리카락을 '무명초(無明草)'라 부른다. 거친 풀을 잘라내듯 일상의 번민과 갈등을 삭발행위를 통해 단절하라는 의미가 있다. 삭발행의는 출가수행자의 상징일 만큼 부처님 생전시부터 출가수행자는 삭발을 했다. 머리카락은 번뇌를 상징하므로 매일 초하루와 보름(포살하는 날)마다 삭발을 하며 자신의 수행일상을 점검하며 경계하였다.

위 그림은 승림사의 후불탱화로 부처님 십대제자들이 귀밀과 정수리를 둘러 깎아 부처님의 정상 육계상처럼 보이도록 삭발을 했다.

이래 그림은 지오토 작 '프란체스코의 죽음'의 부분 그림이다. 수도원장인 프란체스코의 임종을 지키는 수사들의 머리가 아랫부분만 둥그렇게 남기고 전부 삭발된 것을 볼 수 있다. 화필(여천 법학당 주지)

남산의 불산에 보며 웃네

역·사·속·스·로·떠·나·는 죽·음·기·행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저자 : 맹란자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담은 글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는부신 삶 표현<경향신문>4.17.
- 죽을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결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5.5



신국판/304쪽/정가 7,000원

도서출판 새문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 전화 : 3462-2277 · 팩스 :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웃을 입읍시다.

우리웃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①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①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